

사회

영암 삼호고 백일해 2차 감염 우려

보건당국, 항생제 없어 일부 학생에게만 처방... 불안 증폭

학교·학부모 "알아서 병원 가라니..." 반발

최근 영암 삼호고에서 백일해가 집단 발병(본보 5월 29일자 7면)했지만 보건당국이 일부 학생들에게만 항생제를 처방해 2차 감염 우려는 물론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학교와 학부모들은 백일해가 전염성이 강해도 보건당국이 치료제를 제 때 확보하지 못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영암군에서 백일해가 집단발병해 이날까지 삼호고 128명, 삼호중 126명, 삼호서중 7명, 삼호고 교직원 1명 등 모두 262명에게 항생제 지스록스(Zithromax)를 5일분씩 처방

했다.

이와 함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삼호중(412명)과 삼호서중(384명) 등 두 학교 학생 및 교직원 모두에게 예방백신을 접종했다. 반면 전교생 279명 중 확진 환자 36명, 의심환자 154명이 발생하고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유사증상을 보인 삼호고에는 이미 감염이 진행돼 예방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백신접종을 보류했다.

또 가장 많이 발병한 삼호고는 항생제를 처방받은 128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에게 직접 의뢰기관을 방문, 항생제를 처방받으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이미 백일해를 앓은 상

수 학생들은 항체가 생성됐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측은 "전남도 등에 전교생과 교직원에게 항생제를 처방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학생들과 가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백일해가 '제2군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이 학생들에게 알아서 처방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삼호고 인근 약국을 대상으로 확인·취재한 결과 약국당 30정 정도만 보유하고 있었다. 환자 1명당 증상에 따라 6~10정이 처방되는 것을 감안하면 3~5명 분량에 불과하다.

한 약사는 "잘 안 쓰이는 약이다 보니 대다수의 약국이 백일해 항생제를

비상분만 보유하고 있다"며 "급히도 대상 등에 연락한 결과 50명분 정도만 보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마저도 쉽게 구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석가탄신일 연휴 기간에 발병해 상당수의 의료기관들이 휴무중이어서 불가피하게 보건당국 등과 협의해 항생제를 처방했다"라며 "질병관리본부, 영암보건소 등과 상의해 결정했고, 예비적으로 50명분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백일해=기도 내 심한 염증과 기침을 유발해 가족 내 2차 발병률이 80%에 이르는 전염력 높은 질환이다.

싸구려 태국산 수련 국산 둔갑

4만주 납품하려던 조경업자 등 5명 적발

값싼 태국산 조경수인 수련(睡蓮)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하려 한 조경업자 등이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30일 조경수로 쓰이는 시가 1억8000만원 상당의 수련 172박스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무단군에 납품하려 한 조경업체 대표 김모(66)씨 등 5명을 대의 무역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김씨 등은 무단군이 발주한 납품채 상태하한 수생식물 식재공사에 수련

14만5000여주 조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자 태국산 연근 4만주를 국내산과 섞어 불법 납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국산은 국내산(주당 3000~5000원)보다 1주당 500~1000원이 저렴하다. 해경은 무단군청 담당자와 도급·하도급업체 간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해청 관계자는 "2000년 이후부터 중국과 태국 등에서 상당량의 수련이 수입되고 있으나 국내산과 구별이 어려워 원산지가 둔갑한 상태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련은 수련과의 다년생 수생식물로 꽃은 6~7월에 흰색으로 핀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나원침 (8577) 김종두



"구리 수입하면 돈 번다" 속여 20억 가로채

북부경찰, 50대 영장

광주 북부경찰은 30일 해외에서 고철을 국내로 수입해오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속여 거액을 갠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김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와 함께 범행을 한 공범 2명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08년 4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이모(42)씨 등 4명에게 구리고철을 보여준 뒤 "한국에

수출하면 많은 이익이 남는다"고 속여 2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권 사정을 잘 모르는 이씨 등에게 접근해 "동남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며 직접 인도네시아로 데려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이씨 등에게 고철더미를 보여주며 "국내로 수입하면 돈이 많이 될 것 같아 내가 사기로 한 물건"이라고 속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아버지 수감채워 폭행 때문 아들 징역 5년

칠순의 아버지를 수감 채워 폭행한 패륜아들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30일 존속 상해 혐의로 기소된 유모(36)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3월 광주시 광산구 자택에서 재산을 빼앗기 위해 아버지(74)의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현석기자 chadol@

강대광 곡성군부외장 무죄 국장근 전의원 벌금 300만원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30일 4·11 총선과 관련해 예비 후보로부터 금품을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대광(49) 곡성군의회 부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장근(73) 전 의원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된 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총선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선거구가 조정되기 전 담양·곡성·구례 지역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국 전 의원의 명의로 150만원 상당의 호텔 레스토랑 이용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도박 게임서 돈 잃자 종업원 협박 돈 뜯어

광주 남부경찰은 30일 불법 도박게임장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박모(35)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박씨는 지난 27일 새벽 3시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의 한 성인 PC방에서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일명 '바둑이'게임을 하는 중 종업원 김모(22)를 협박해 현금 80만원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게임에서 현금 65만원을 잃자 종업원에게 "120만원을 잃었다. 사기 PC방을 운영한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민기자 kki@

길거리서 성기 노출 '바리맨' 실행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성과 아이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30대 '바리맨'에게 법원이 실행을 선고.

○"광주지법 형사2단부 홍진호 부장판사는 30일 지난 1월 광주시 북구 운암동 초등학교 인근에서 지나가는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 6~7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처했다는 것.

○"재판부는 "김씨가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판시했다"고 설명.

/김대성기자 bigkim@

누구를 위한 주차장인가?

광주시 서구가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인 양동 산업용품시장 인근에 공용주차장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그 필요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주차장 예정 장소가 시장과 멀게는 200m 가량 떨어져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이미 시장 주변에 조성된 주차장 가동률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정에서 수십억원의 혈세만 낭비할

양동 산업용품시장 인근 서구 24억 들여 추진 "기존 주차장도 비었는데"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서구에 따르면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광주 서구 양동 96-1번지 일대 1437㎡ 면적에 모두 24억원(국비 60%·시비 20%·구비 20%)의 예산을 들여 50면 규모의 '양동산업용품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이다. 서구는 현재 16억원의 예산을 해당 부지 매입을 위해 소유주들과 협의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자치구가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는 주차장을 신규 조성하는 것보다 일부 이용자 및 상인의 상습적인 불법 주차 등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양동시장 북개삼가 지하 주차장(300면)의 경우 매일 평균 주차대수는 500대, 지난 4월 준공된 80면 규모의 달전길시장 공영주차장도 80여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주차장의 낮은 가동률은 서구가 압목적으로 전변좌로 4차 선 중 1개 차선에 대해 주차를 일부 허용하면서 심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상가 주변 도로에 불법주차차 단속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그 외곽에 주차장을 신규로 조성하는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특히 전변좌를 따라 T자 형태로 들어선 시장의 특성상 특정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상가와 거리가 떨어져 있어 이용률은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당뇨병 합병증 검사 광주시 북구보건소는 30일 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당뇨병 합병증 검사를 실시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경찰청지정 운전면허 시험장

트레일러 대형

1,2종 보통

2종 소형 (오토바이)

www.yjdrive.co.kr

문자면허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광주 최대의 규모 ▶ 깨끗한 환경 ▶ 친절한 강사진

학원에서 교육한 차량으로 주5회 장내·도로 자체시험 실시

- 새벽반, 야간반, 주말반 운영
- 2012년 7월 부터 수강료에 부가세 과세예정
- 교재무료 배부
- 11월부터 도로주행 시험강화로 수강료인상 예정
- 셔틀버스 운행

주영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

위치: 신가동 사거리 분향교회 옆, 중앙아동병원 앞 ☎062-951-5100